

소리문화전당, 문체부장관상 '영예'

•제15회 JHAF 문화예술상 시상식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기여 인정받아
문화소외계층 문화나눔사업에도 공헌



지난 19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15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문예회관상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지난 1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제15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전국 230여 개의 문화예술기관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문화향유 환경 개선과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문예회관에 수여하는 뜻깊고 의미 있는 상이다.

전당은 심사과정에서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사업 활성화 노력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부적으로는 국악과 태권도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 태권소리극 '소리극 시리즈'를 전북예술인들의 역량을 모아 자체 기획·제작해 전당과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공연으로 육성하였고, 특히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소리극Ⅲ '태권유랑단 녹두'는 '2022 한문연 국·공립예술단체 우수 공연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전국 문예회관 투어공연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중앙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국고지원금을 확보, 도민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노력했으며, 전당이 보유한 시설과 전문인력, 문화지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연령별 예술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시행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한 점도 인정받았다.

전당의 자체 기획·제작 시스템을 활용해 신진 예술인 발굴과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대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도내 소외계층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업해 문화소외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한 것도 평가에 반영됐다.

지역의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공연을 무료로 선보이는 '찾아가는 예술극장' 운영과 다양한 복지 우대 정책을 통해 2021년 한해에만 약 5만 명에 달

하는 문화소외계층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서현석 대표는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노력해온 전당의 열정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북 문화예술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임해 전북이 문화복지 1등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오현의 세상보기

조족지혈(鳥足之血)



‘표박자’의 ‘미지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은 의미심장하다. “소 발자국에 고인 물에서 헤엄치는 한치의 장구벌레는 천하에 넓은 사해가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과일 씨앗속을 기고 있는 바늘 끝 같은 벌레는 그것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아무리 망망한 바다와 넓은 우주를 아무리 설명해주어도 거짓말이라며 믿지 않는다.”

지금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전체문장의 깊은 의미가 그러하지만 특히 소 발자국에 고인 물이다.

예의 이 말은 작거나 적은 그 무엇을 이르는 기막힌 비유라는 생각이 든다. 이를 한자어로 ‘제잠’이라 한다.

‘제’는 짐승의 발굽이요, ‘잠’은 고인 물을 뜻한다.

따라서 ‘제잠’은 그대로 ‘소 발자국에 고인 물’이다.

‘제잠’처럼 ‘아주 적다’는 뜻의 또 다른 비유어가 바로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이는 고사성어가 아닌 사자성어여서 유래답이 없다.

‘일석이조(一石二鳥)’가 원래 서양 속담에서 비롯된 어휘이기에 유래답이 없듯이 말이다. ‘내 코가 석자’를 ‘오비삼척(吾鼻三尺)’이라 하거나 ‘밧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를 ‘지부작족(知釜斫足)’이라 하는 것은 우리 속담을 고사성어식으로 만든 어휘다.

‘조족지혈’ 역시 ‘새발의 피’라는

우리 속담에 나온 사자성어인데 여기서 다시 관심은 오늘의 주제인 ‘새발의 피’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으로 바뀌는다.

새의 발가락은 거의 발톱으로 이루어져 활관이 없으므로 피가 통하지 않아 상처가 난다해도 피가 보이지 않는다.

요즘 조족지혈(鳥足之血)이란 말이 도처에서 들려온다.

정부의 실정에 대해 전 정권을 탓하며 ‘새발의 피’란 말을 하며 합리화시키려 한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 대통령이 불공정과 상식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 조사에서 긍정평가의 이유 중 ‘공정, 정의, 원칙’의 비율이 겨우 3%로 대통령 스스로 감아먹는 신뢰의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현상이 있기까지 여론 정치인들의 언행도 한몫했을 것이다.

뿌리가 뽑힌 여당 대표의 편을 모으고 아직도 권력투쟁에 여념이 없다.

‘위기는 기회’라 했다. ‘새발의 피, 조족지혈(鳥足之血)’로 생각하며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면서 비 판여론을 수용하여 정상적인 국정을 이끌어가야 될 것이다.

조선시대 호남지역 군적부 최초 학계 소개

23일 순창군립도서관서 학술대회

순창군과 순창군 문화지원활동추진위원회(위원장 강병문)는 오는 23일 순창군립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조선시대 호남 군현 군적부 고증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경대학교 이복규 명예교수가 경주순창철씨대종회장인 설명환 선생이 소장한 목판본 군적부(軍籍簿)를 발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같은 학술대회는 강병문 순창군 문화지원활동추진위원장의 개회사와 최영일 순창군수, 신정인 순창군의회 의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설명환 경주순창철씨대종회장이 ‘호남지역 군적부의

입수와 발견 경위’를 주제로 기조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복규 서경대학교 명예교수가 ‘새로 발견된 호남지역 군적부에 대하여’를, 이상훈 육군박물관 부관장이 ‘조선 후기 지방군 운용과 군적부의 작성’을 발표한다. 조영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7~18세기 전라도 군영의 연령과 체격’, 김현영 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정보화실장은 ‘군역 관련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후기 군역 파악 방식의 변화’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다. 아울러 김경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호남 군적부를 통해 본 조선 후기 군사 변화와 군사정책’, 조용진 전 서울교육대 미술교육과

교수는 ‘호남 군적부 파기의 형질 인류학적인 분석’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한편 토론에는 김철배 임실군청 학예연구사, 강신엽 전 육군박물관 부관장, 오창현 목포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전 부원장, 김만호 광주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나선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조선시대 호남 지역의 군적부 자료로는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조선시대 병무행정과 생활사를 이해하고 고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다양한 연구자들이 순창을 찾아와 연구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순창=신경희기자



순창군과 순창군 문화지원활동추진위원회는 오는 23일 순창군립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조선시대 호남 군현 군적부 고증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우리식주의자를 행오하는 시의

여기에 담는 77편의 글은 역사와 인문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은 결코 절대적 선에 대한 오만한 주장이 아니다. 다만,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유하고 싶은 지극히 소소한 울림일 뿐이다.



장상록

어느 날 점심으로 보신탕이 나왔다. 정성껏 마련해주신 아주머니께 미안함을 가지고 물었다. “이거 혹시 보신탕인가요?” 그렇다는 답을 듣고 “저는 보신탕을 못 먹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머니는 내 의사대로 해주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식당에선가 떠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식사가 끝난 후 친구와 만나 잠시 담소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 “상록이 없을 때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사내 녀석이 보신탕도 못 먹는다.’며 입에 담기 민망한 수준의 말까지 퍼부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마디 해줘야.”

장상록 저



1983년 금구중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5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2007년 완주군청(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였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예산군청(농업기술센터)에 근무 중이다. 2019년부터 한국문인협회 예산지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예산부한정보신문』, 『예산소식지』, 『계간 글의 세계』 등에서 활동하였다.

도서출판 청통 | 값 20,000원

본문=채식주의자를 혐오하는 사회 중에서